

천태만상, 자판기 세상 속으로 그 다섯 번째 보따리

세상도 복잡하고 험난해 살아가기 '헉헉' 소리가 절로 나는 마당에 훈훈한 에피소드부터 먼저 소개한다. 때로는 자판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살맛나는 세상을 느낄 수 있다.

사연있는 청와대 '고장난 자판기'

고장난 춘추관 담배자판기에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청와대 신관 매점 주인은 김인호씨(38)다. 김씨는 지난해 5월12일부터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김씨는 아내 박한가위씨(33), 동생 김인성씨(28)와 함께 매점과 자판기 8대를 운영하고 있다. 동생 인성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형의 매점에서 일을 시작했다.

청와대 직원 규모는 기능직을 합쳐 500명을 넘지 않는다. 이름이야 거창한 '청와대 매점'이지만 매출은 뻥한 수준이다. 인성씨가 형의 일을 돕는 것에는 사연이 있다. 인호씨는 1급 장애인이다.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은 뒤로 휠체어 신세를 졌다. 앞친 데 덮치기로 97년에는 교통사고까지 당했다. 아내도 뇌성마비 2급 장애인이다. 매점 운영도 청와대가 장애인총연합회 추천을 받아들여 이뤄진 일이다.

청와대 경내는 넓다. 곳곳에 흩어진 자판기 8대를 관리하는 것은 동생 인성씨의 몫이다. 김씨는 "딱상 매점을 열고 보니 정상인 직원 없이 되는 일이 아니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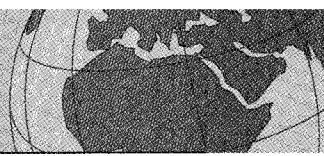
다. 그래서 동생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말했다. 인성씨는 월 200만원 수입이던 직장을 포기하고 혼쾌히 제안을 받아들였다. 형에게서 받는 월급은 120만원 정도다. 인성씨는 형 부부 대신 역시 장애인인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김씨는 "장애인만 3명인 가족이 협력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장애우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자판기에는 특징이 있다. 연락처란에 매점 전화번호가 아닌 인성씨의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져 있다. 김씨는 "휴대전화라는 게 원래 족쇄다. 동생에게 '휴일도 못 쉬려고 걱정했다'고 화를 냈더니 동생이 '형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3월 중순께 춘추관에 설치된 담배자판기에 '고장' 표시가 붙은 적이 있다. 김씨는 "동생이 토요일에 신고를 받고 일요일날 출근해 자판기를 고쳤다. 수리 사실을 몰랐던 누군가 고장 표시를 다시 붙인 것"이라고 말했다.

한푼두푼 동전 모아 무의탁노인 화재보험

소방관들이 자투리 동전을 모아 무의탁 노인들에게 화재 보험을 들어줘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충북 영동소방서 소방관들은 올초 직원회의를 거쳐 소방서와 황간, 옥천소방파출소의 휴게실 4곳에 '사



량의 동전 모금함'을 설치했다. 모금함에는 직원들이 자판기에서 커피 등 음료나 담배를 뽑은 뒤 남은 자투리 동전이 한 푼 두 푼 쌓여 한 달에 약 10여만원이 모이고 있다.

소방관들은 이 돈으로 영동읍 비탄리 서병연(75)씨 등 혼자 살거나 형편이 어려운 노인 6명에게 화재 보험을 들어줬다. 이들이 내주는 보험료는 노인 1인당 2만원이 채 안되지만 불이 나면 1,500만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다.

소방서측은 직원들의 참여가 늘고 있어 4월부터는 보험 가입...

을 더 늘릴 계획이다. 소방서 허창구씨는 "최근 농촌에서 발생하는 주택화재는 대부분 형편이 어렵거나 혼자 사는 노인 가정이 많고, 이들 노인 대부분이 화재를 당하면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는 것이 안타까워 보험 들어주기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충청북도, 장애인 등 생업지원 위해 자판기 운영지원책 강화

충청북도가 자판기 운영을 통한 장애인 및 노인, 모자세대 등의 생업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어 타 지자체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충북 영동군은 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 생업지원을 위해 군청과 군 산하 공공시설 내에 매점과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군은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이들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4월 1일 밝혔다. 이 조례는 4월말 달 말에 열리는 영동군의회 임시회 때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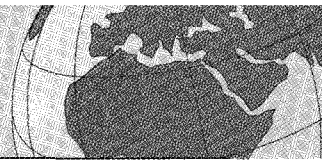
매점은 15㎡ 이하, 자동판매기는 설치대수의 50%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은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나 65세 이상 노인, 모.부자가정 등이다. 계약기간은 2년(재계약 가능)이며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매점 및 자판기 설치계약 1개월 전에 군보 등에 사전공고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라며 "운영권을 허가 받은 사람은 자신이 직접 사업에 종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청주시는 상당보건소 등 22개 공공시설의 자판기 운영권을 일반 사업장에 취업하기 어려운 장애인 등에게 허가해 주기로 했고 지난 2월 밝혔다.

지난해말 계약 만료된 상당보건소 등 22개 기관에 대한 자판기 운영권을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 모자세대에 3년간 허가해 주기로 하고 조만간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또 기존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청주시청을 비롯한 13개 기관의 매점과 자판기 운영권도 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장애인 등에게 허가해 줄 방침이다.

'재수없는 도둑'...인형뽑기 날치기 현장서 검거
인형뽑기기를 20대 도둑이 범행현장 인근에서 때마침 발생한 날치기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황급히 달아나다 붙잡히는 촌극이 벌어졌다.



지난 2월 24일 오전 4시 50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B 아파트 상가 앞. 줌도둑 김모씨(21.광주 서구 풍암동)는 새벽 어둠을 틈타 미리 준비한 공구로 인형뽑기기를 부순 후 금품을 훔치고 있었다.

인적드문 곳에서 유유히 인형뽑기기를 턴 지 10여분. 어디선가 느닷없이 '도둑이야'란 소리가 들려왔고, 놀라 도망치던 김씨는 결국 300여m를 달아나다 지나가던 군인 서모씨(22)에게 격투 끝에 붙잡혔다.

김씨의 손에는 당시 달랑 동전 5000원뿐이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피해자 박모씨(43.여)는 현금 20만원과 신용카드 등이 든 손가방을 찾기에 급급했다.

알고 보니 박씨는 이날 외출에서 돌아와 차에서 내리는 순간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손가방을 날치기 당한 후 순간 '도둑이야'를 외쳤고, 같은 시간 인근 상가에서 인형뽑기기를 털던 김씨는 이에 놀라 부랴부랴 현장을 빠져나가다 그만 피해자측에 붙잡히고 만 것.

김씨는 결국 날치기 혐의로 붙잡혔다가 절도 혐의로 이날 광주 서부경찰서에 입건됐다.

담당 형사는 "역수로 채수없는 도둑"이라며 "완전범죄를 노리려다 엉뚱한 계기로 죄값을 치르게 되는 걸 보니 죄가 벌을 부른 것 아니겠냐"고 고개를 저었다.

자판기 관련 사건 사고

자판기 관련 사건사고의 대부분은 사기와 절도이다. 자판기 보급대수가 늘면 늘수록, 또 자판기가 다양해지면 질수록 그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서는 자판기 절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인터넷, 방송매체 등을 통한 모방범죄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산업계도 도난문제를 어쩔 수 없는 사건사고로 만 방기하지 않고 슬기로운 자율대책을 강구해 나가

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온 것 같다.

<가짜 자판기 임대서류로 89억 빌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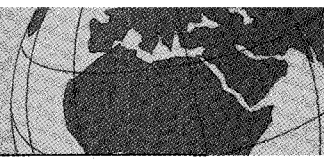
자판기 산업계로 볼 때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터졌다. 자판기 위생교육까지 담당을 했던 한국식품자동판매기업중앙회 회장이 사기로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검사 李昌世)는 지난해 12월 28일 자판기 임대 서류를 꾸며 금융기관에서 89억원을 대출받은 후 가로챈 혐의(사기)로 한국식품자동판매기업중앙회 회장 주모(56)씨를 구속했다. 자판기 임대업을 하던 주씨는 지난 7월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명의 대여자를 모집해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이용해 받은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89억1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자판기 사업 투자 미끼 수십억원 편취>

광주 동부경찰서는 3월 26일 자판기 사업 투자를 미끼로 수십억원의 투자비와 이익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안모(42.여.무직.광주 동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97년 11월 30일부터 지난해 5월 말까지 아들과 딸이 다니던 초등학교와 중학교 자모회장을 하면서 강모(54.여.광주 북구)씨 등 학교 자모회원 17명에게 자판기 사업에 투자하도록 한 뒤 총 36억3천만원의 투자금과 이익금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안씨는 자신의 외삼촌이 모 그룹 임원으로 자판기 사업을 한다며 1인당 24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20만-30만원씩 10년 동안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신이 직접 자판기를 구입, 운영하면서 그 이익금을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 보고 모방, 자판기 턴 10대들 덜미〉

커피자판기 전문털이범이 붙잡힌 뉴스를 보고 수법을 그대로 모방해 또 다시 커피자판기를 턴 10대들이 덜미를 잡혔다.

경북 문경경찰서는 2월 25일 커피자판기에서 현금을 훔친 백모군(15.경북 문경시 모전동) 등 2명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백군 등은 지난달 1월 중순께부터 최근까지 경북 문경 시내 곳곳의 상가에 설치돼 있던 커피자판기에서 빠루를 이용해 문을 따는 수법으로 자판기 내에 있던 현금 30만원 상당을 훔치고 480만원 상당의 자판기를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군 등은 경찰에서 "TV에서 자판기를 턴다 붙잡힌 도둑의 뉴스를 보면서 빠루를 이용해 범행을 계획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자동차판매기 절도 범죄 잇따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판매기를 훔친 혐의로 광주시 화정동 17살 최 모군 등 10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군 등은 지난 2월 23일 새벽 광주시 월산동 모 할인점 앞에서 현금 4만원이 들어 있던 시가 45만원 상당의 완구 자동차판매기 5대를 손수레로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도 5차례에 걸쳐 복권 자판기를 부수고 현금과 복권 등 80여 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로 광주시 중흥동 33살 오 모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도서관 앞 자판기 3대 털려〉

지난 3월 28일 오전 8시 30분께 대전시 서구 갈마동 갈마도서관 앞에 있는 음료 자동판매기 3대에서 동전 등 100여만원이 없어진 것을 주인 이모(35)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음료를 뺀 뒤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는 도서관 직원의 말을 듣고 가보니 자판기 3대에 들어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자판기를 부수거나 강제로 열지 않고 열쇠를 이용해 돈을 모두 훔쳐간 점 등으로 미뤄 전문 절도범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인천/경기]자판기에도 도로점용료 물린다

앞으로 인천지역 도로 위에 들어선 자동판매기와 구두수선소 등에도 일정액의 도로 점용료가 부과된다. 인천시는 최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지난 2월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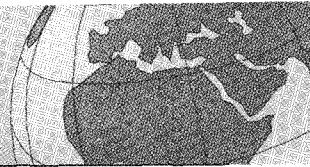
개정 조례에 따르면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는 대상에 기존의 광고탑과 광고판 외에 자동판매기와 버스표 판매대, 구두수선소 등이 추가된다. 또 군수나 구청장이 지정한 재래시장의 비가리개와 차양막 등에도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우선 광고판 등의 점용료는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1㎡ 당 남구 등 8개 구(區)는 하루 200원, 강화군 등 2개 군(郡)은 100원을 받기로 했다. 현수막은 구의 경우 150~200원, 군의 경우 50원~100원을 징수한다.

자동판매기와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의 도로 점용료는 설치물이 차지하는 면적 1㎡ 마다 해당지역 땅값(개별 공시지가 기준)에 0.0001~0.05를 곱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그러나 그동안 부과대상으로 규정했지만 점용료를 물리지 않은 노점상이나 상품진열대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정 조례는 점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하는 불법 광고물 등을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 '인천시 시세(市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도로변 '응가방' 도심 흉물로

서울시내 곳곳에 설치된 간이 유료화장실(일명 응가방)이 '도심의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사용하기 민망한 대로변에 있거나 고장난 채 방치돼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02한·일 월드컵을 앞둔 지난 2001년 3월 한국을 찾는 외국인 등의 편의를 위해 18억여원을 들여 시내 15곳에 응가방을 설치했다. 바닥면적 1.2평으로 이용자가 100원을 넣으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사용후 바닥, 변기의 데 등이 회전해 자동으로 청소되는 응가방은 2명이 들어설 경우 작동이 중단되고 사용시간이 10분을 넘으면 경보음과 함께 자동으로 문이 열린다.

그러나 잘못된 위치선정과 관리 소홀 등으로 이용객이 적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도심의 앓물단지로 변해버렸다. 서울 동대문 상가에 위치한 응가방의 경우 인근 상인들이 가게 주위에 화장실 설치를 꺼려 외진 곳에 만든 바람에 사용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응가방을 설치·관리하고 있는 (주)보라 김정훈 과장은 "유지비용 183원(1회 사용)대로 응가방을 관리하고 있지만 사용자들이 턱 없이 적어 설치후 3년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설치 당시 1대당 하루 최대 250명의 사용자를 예상했지만 지금은 1대당 하루 평균 48명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여성복지국 화장실수준향상팀 관계자는 "응가방 하루평균 이용자가 예상의 5분의1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일상화한 시설로 자리잡으면 점차 나아질 것"이라며 "대로변, 광장 등에 있다는 이유로 사용이 꺼려진다면 주위에 가리개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판기 창업도 취업난 돌파구로 선호

온라인 리크루팅 업체인 잡코리아가 남녀 구직자 1천



6백 52명을 대상으로 '취업난을 피하기 위한 대책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0.8%(5백9명)

의 구직자가 '창업'을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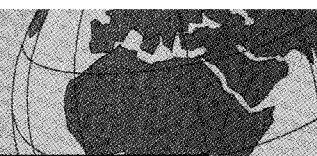
한편 취업난의 돌파구로 창업을 선택한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창업 업종으로는 IT(인터넷 관련)업종이 39.7%로 가장 많았으며, 프랜차이즈 체인업 24.7%, 판매업 8.8%, 서비스업 3.1%, 대여업(체인)과 자판기 사업이 각각 2.0%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담배자판기에 성인인증 장치 부착 추진
이탈리아의 1천500만 푸마토리(애연가)들의 설 땅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새해부터 이탈리아의 20만 레스토랑, 주점들은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공중보건법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강력한 환풍설비를 갖춘 흡연구역을 만들어야 한다. 내년 1월13일에는 모든 레스토랑과 주점에 이를 의무화하는 한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무거운 벌금과 영업정지조치를 취하는 법안이 발효될 예정이다. 레스토랑과 주점 주인들은 1년안에 흡연구역 설치나, 아니면 미국 처럼 업소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선포할지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들의 담배 구입을 줄이기 위해 오전 9시에서 저녁 7시까지 담배자판기의 가동을 금지하는 법률이 올해부터 발효됐고 자판기가 전자 주민카드 소지자에 한해서만 담배를 팔도록 하는 추가 조치도 준비중에 있다.

이탈리아는 인구 4명당 1명꼴로 담배를 피우는데다 흡연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관대한 문화를 갖고 있어 정부의 흡연 규제가 효과를 발휘할지는 두고봐



야 할 일.

그러나 이탈리아의 애연가들만이 수난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

아일랜드가 다음달 하순부터 전국의 수만 펍(pub)에 대해 흡연규제 조치를 가할 예정이고 흡연인구가 45%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그리스마저도 올해 안에 정부 청사내 금연, 식당, 주점의 금연구역 설치의 의무화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의 직장내 금연 조치는 1일부터 발효됐고 식당과 주점에 대해서만 최소한 2005년까지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노르웨이는 아일랜드의 선례를 뒤따라 4월 8일부터 식당과 주점에 전면적인 금연 조치를 실시한다.

일본 도쿄도, 잡지자판기에 성인인증장치 부착 의무화

일본의 각 자치단체는 소년범죄 유발을 이유로 성인용 도서의 판매규제를 실시하고 있거나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내년 1월에 청소년 건전육성조례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도쿄도는 서점 등 점포에서 미성년자가 성인용 잡지를 보지 못하도록 책 출하 단계부터 비닐로 밀봉할 것을 출판사에 요구하는 새로운 규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규제 대상은 출판업계의 자율규제단체가 18살 미만에게 금지하는 성인용 마크가 붙은 150 종류의 잡지다.

현행 조례로도 다른 책과 구분·진열해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마크가 없는 잡지도 도 당국이 불건전 도서로 지정한 경우에는 포장의 의무화할 방침이다. 도쿄도는 또 자판기를 통해 파는 성인용 도서의 경우, 운전면허증 등 성인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넣지 않는 한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 도입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가나가와현의 청소년 보호육성 조례는 "현저하게 성

적 감정을 자극하거나, 잔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유해도서류로 규정해 18살 미만에게 판매를 금지하고, 편의점 등의 판매 때 칸을 구분해 진열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30만엔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밖에 전국 대다수의 도·부·현 등 지자체들은 성적 감정을 자극하는 유해한 묘사가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면 자동적으로 불건전도서로 지정해 18살 미만에게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도쿄도는 이번 조례개정 검토에서 "이 제도는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며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 'SW 자판기' 인기

무인 소프트웨어(SW) 판매 방식이 미국에 등장, 소프트웨어 판매의 새로운 풍속도를 형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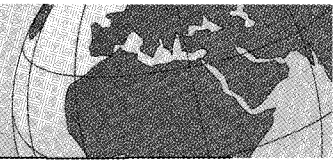
미 3대 전국지중 하나인 USA투데이에 따르면 컴퓨터 전문 대형 유통매장인 컴프USA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같은 무인단말기(키오스크)에서 소프트웨어를 판매,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소프트웨어 투고(SoftwareToGo)'라 불리는 이 시스템은 마치 자동판매기에서 캔디가 쏟아지 듯이 소프트웨어를 무인기계에서 판매토록 하고 있다.

업계 일각은 이 시스템에 대해 "소프트웨어가 팔리고 분배하는 과정을 양적, 질적으로 바꿀수 있다"며 주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또 보안 및 느린 접속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인터넷 다운로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도 여겨진다.

컴프USA는 이 기기를 샌프란시스코와 달라스 일부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재고 부담과 도난 걱정이 없는 등 장점이 많아 내년 5월까지 228개 자사 모든 매장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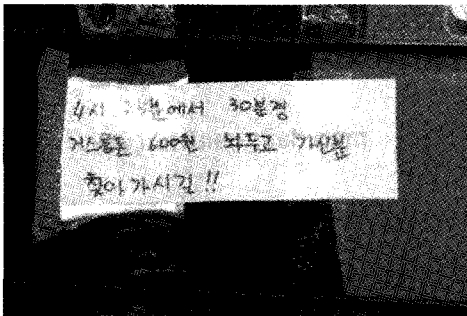
이 기기를 만든 프로토크테크놀로지의 최고경영자 부루스 뉴먼은 "총 1200여종의 소프트웨어가 기기 안에 들어가 있다"며 "영역별로 구분된 소프트웨어를 소비자



가 선택, 구매하는 데 3~4분밖에 안 걸린다"고 말했다. 프로토타입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제품을 공급하는 225개 업체중 한곳의 사장인 데이비드 베렛은 "이는

소프트웨어 판매 방식에 있어 주요한 변화라"고 강조하며 "물건(소프트웨어)를 제조·출하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디카&폰케] 커피 꺼내고 '깜박한 600원...찾아가셨죠?



[조선일보] 아침이면 신문을 들고 화장실로 달려가 잠깐의 휴식을 즐기는 30대 봉급쟁이입니다.

12월 11일, 화장실에서 펼쳐본 헤드라인 기사는 나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00당 00기업에서 00억원 받아."

"00씨 0억원 개인 유용."

국가의 운명을 중추적으로 책임지는 자들의 이 같은 행태에 '울분'도 느끼지만, 그날 따라 왠지 제가 초라하게 느껴지더군요. 한테, 이날 오후 '600억원짜리 커피'를 마시면서 기분이 확 바뀌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성남 집에서 서울 송파구 소재 사무실에 오전 8시30분쯤 도착했습니다. 커피 자판기에 늘 하던 대로 동전을 넣는 순간 누군가가 써놓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오후) 4시23분에서 30분쯤 거스름돈 600원 놔두고 가신 분 찾아가시길!!'

누군가 놓고 간 거스름돈을 테이프에 붙인 뒤 글을 적은 것이었습니다.

머리를 어지럽혔던 많은 생각들이 순간 지워지더군요.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3시쯤 다시 자판기에 가 보았더니 600원은 주인을 찾았는지 안내문과 함께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600억원' 부럽지 않은 아름다운 양심은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에 밝은 미래의 확신과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살 만한 것이겠지요.

<독자 이신권>